

진리의 터 위에

Upon the Foundation of Truth

디모데후서 3:15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5월 6일 설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언약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말을 더 무겁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 하나님 말씀 한 마디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대로 나도 이웃에게 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전에 했던 구원의 약속을 취소하시거나, 기억 안 난다 하시면 그 약속 하나 믿고 살아온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삶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약속 하나만큼은 철저히 지키도록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도 하지요? 이게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게 말해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한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에, 전체 교회에 주신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에 가입되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다 받으라 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반은 여자인데도 남자만 받을 수 있는 표시를 주신 것은 여자는 안 받아도 남자가 받으면 함께 언약에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은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는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공동체의 당연한 일원입니다. 물론 지성도 훈련하고 경험이나 판단력 같은 걸 갖추어야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자라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난 지 여드레 되는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넣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약속하신 중요한 한 가지가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하나님이 처음 땅을 약속하실 때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창 12:7). 아브라함이 아닌 후손에게 주마 하셨습니다. 뒤에 가서는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언제나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염두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행 7:5). 아직 자식도 없는데 땅은 자식들한테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언약을 세우는 당사자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역시 다 하나님의 언약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여드레만에 할례를 베풀었고 이삭이 젖을 땀을 때, 그러니까 한 단계 성장했을 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늘그막에 자식을 봐 기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기뻐 잔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자녀가 포함이 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 권한 다음 이어 말하기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면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행 2:38-39). 너희는 지금 믿고 너희 자녀는 나중에 커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공동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감옥 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도 간수 본인뿐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다 믿고 다 세례를 받았습다. 한 가정의 통째로 하나님의 언약에 가입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적 판단력도 없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부터 아이에게 세례 주는 걸 반대하는 분파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침례교나 오순절 교단에서는 유아세례를 반대합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게 세례라 하는 그 말은 백 번 맞습니다. 다만 세례가 무엇이나 하는 데 대해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그 고백을 확인해 주는 의식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의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서 가짜로, 장가들려고 아니면 고객 좀 확보해 보려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세례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참 믿음일 때만 그 믿음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또 참 믿음이 있으면서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세례에 관계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는 마음 속 믿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건데 표현보다는 속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왜 갓난아이에게 세례를 주느냐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답은 간단히 말해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가입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던 어른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전체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 제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까지 불신자 취급하다가 나중에 믿겠다 하면 세례를 주어야 됩니까? 주일마다 아이는 베이비시터한테 맡겨 놓고 부모만 교회에 와야 됩니까? 아니지요.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를 통해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는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도 모르는 아이가 세례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서 나 예수 안 믿겠다 하고 거부하고 가면 어려서 받은 세례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를 통해 또 교회생활을 통해 신앙교육을 잘 받아 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그런 사람은 전체 앞에서 신앙고백만 하고 어려서 받은 세례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 세례를 다시 주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외적인 표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약의 자녀

간단히 말해 유아세례는 이 아이가 언약의 가정에 태어나 언약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신 것처럼, 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을 주실 때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것처럼,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함께 받은 자녀를 말합니다. 부모가 일단 믿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요? 그럴 때 자녀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함께 받습니다.

부모가 믿으면 자녀도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 나하고 똑같이 믿는 사람으로 키우게 됩니다.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네가 크면 알아서 정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믿음 안에서 양육을 받아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계속 머물러 끝까지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장학일 목사님 가정의 둘째 딸 시온이가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부터, 아니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그 날부터 사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당신의 것으로 예정하셨을까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정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믿음의 가정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도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가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믿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전달해 주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아이로 기르게 됩니다. 첫째로는 부모의 책임이지만 믿음의 가정 또한 전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

두어 주 전에 우리 교회 대학생 하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이 학생이 요즘 다른 종교를 좀 알아보고 있다 했습니다. 기독교만 진리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있다 했습니다. 제가 당장 그만두라 했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일 뿐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도 살아 움직이고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위험한 줄 꼭 가서 보고 확인해야 지성인다운 행동이겠습니까? 그런 만용 말고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저처럼 생각하는 걸 참 줍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다른 종교를 접해 볼 기회가 없었으니 가서 종교 의식에 참여도 해 보고 교리도 공부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또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일부러 배워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타고납니다. 거짓말하는 법, 욕하는 법, 남 때리는 법, 나만 챙기는 법, 이런 건 안 배워도 잘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는 세상,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아직 신앙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아이가 이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뭐가 좋은지 한 번 알아보자 하고 나간다면 그건 실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으면 부모는 좋은 것만 골라 먹이고 싶습니다. 서너 살 아이한테 “너도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니깐 네가 잘 판단해서 해라” 하지 않습니다. 장난감도 비디오도 게임도 좋은 것 안 좋은 것이 있는데 부모가 가려서 줘야지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몸에 좋은 것, 정신에 좋은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열심히 챙기고 가려 자녀에게 주는데 자녀의 영원의 운명이 달린 문제를 놓고 어떻게 도박을 하겠습니까? 자녀가 상당히 자란 다음이라면 억지로 안 되겠지요. 어렸을 때도 강압적으로는 물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에게 바른 것만 가르치고 바른 것만 알게 해도 제대로 자랄까 말까 한 판국에 가서 나쁜 것도 경험해 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바른 것만 부지런히 가르쳐서 아이가 그 진리 위에 터를 든든히 잡으면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것 없이 든든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주로 배웠습니다. 학교 공부도 물론 했지요. 하지만 언제나 성경이 진리라고 배웠습니다. 대학 때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기 중 신앙을 버린 친구도 몇 있지만 저는 이미 신앙이 든든히 잡혀 있으니 세상 공부를 하면 할수록 흔들리는 대신 믿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된 다음 다시 철학 이랑 종교를 공부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이것만큼 분명한 진리는 다시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평생을 배운 게 영터리였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감사 또 감사입니다. 지금도 책 보고 자료 뒤지고 합니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인간의 머리를 믿는 사람, 세상 학문을 믿는 사람, 그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 성경이 진리 가운데서도 참 진리요 사람은 누구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 싫어합니다. 제가 자주 들먹이는 티 에스 엘리엇트는 지난 세기 기독교 지성 및 세계 지성을 대표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조상 때부터 유니테리언이라는 기독교 종파에 속했지만 사실상 합리주의자였고 인간의 이성을 더 믿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현대 사회와 문명을 비판하던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가 엘리엇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기예다 이렇게 썼습니다. “불쌍한 우리 엘리엇트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으로 민망스럽고 답답할 따름이다. 그 친구는 이제 우리한테는 죽은 사람이다.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고 교회에도 간다. 진짜 충격이다.” 조롱이지요. 엘리엇트는 지성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반기독교적일 때 지성이라 하고 존엄성이라 합니다.

다른 종교하고 붙으면 질까봐 자신이 없어 성경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일탈이 필요할 때가 있고 영터리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 믿음의 토대에서 하면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뿐인 인생 살면서 안 해 보아도 전혀 손해가 아닌 게 많은데 그런 걸 한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시간 그 노력을 기울여 어려서부터 진리를 가르치고 또 가르쳐 그 토대 위에 든든하게 서도록 만들기만 하면 그 뒤에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기대하셨던 그런 일을 하는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이는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고 또 부모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으니 사랑 덩어리요, 또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아무 한계가 없으니 가능성 덩어리입니다. 가능성 가운데는 위험한 것,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걸 다 멀리 하고 좋은 쪽으로만 잘 기르고 도와주어 가장 멋진 사람이 되어 가장 멋진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요 또 여기 모인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오늘 세례 받는 시온이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상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권수경 목사)